교회의 금지곡 ‘하나님 찬양(?)’

(시편 137:1~9)

1.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2.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3.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4.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5.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6.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교회의 금지곡 ‘하나님 찬양’(?)>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교회의 금지곡 '하나님 찬양'(?)

‘상대성이론’이란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은 없다는 내용의 이론이라고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뉴턴의 기계적인 세계관 안에서는 시간과 공간은 절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보자면 관측자의 입장에 따라서 시간과 공간의 성질이 유동적이 됩니다. 빛의 속도로 이동하면서 시간을 관측하면 멈춰 있는 상태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대성 이론을 하나님 찬양에 적용시켜 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절대로 무조건 언제나 선하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서는 안 되는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 입에 올려서는 안 되는 상황도 있습니다. 즉 이 세상의 가치에 포로 된 사람들 앞에서의 하나님 찬양은 금지곡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자들은 오늘 시편에서 말하는 성전을 파괴한 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말한 대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는 곧 십자가 생활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선민이나 교인이나 교회일지라도 하나님 찬양은 금지곡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다면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매 장을 통해서 오늘의 번제를 해나갑니다. 이것이 주일예배나 수요예배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예배 때에는 아무래도 목사님이 선호하는 본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의무적으로라도 성경의 모든 부분을 거치다보면 참으로 의외의 메시지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발상자체가 불가능한 메시지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따라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을 해도 묻힌 채 발견하지 못하는 신앙적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유다 백성 중에 어떤 사람이 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시대적으로는 바벨론이 바사(페르시아)에 망하기 직전입니다.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정복당하고 곧 포로귀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늘 본문과 같은 심경의 노래가 나오기 힘들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바벨론이 망하기 전으로 추정합니다.
1절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라고 하는 말은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므로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여러 강변'이라는 말은 당시 바벨론을 관통하던 강은 유프라테스 하나뿐이었는데 이는 곧 유프라테스 강을 수원지로 하는 지류들을 말합니다.
이어서 2절을 보면 '그 중의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라고 하였습니다.
'강변의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수금은 본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사용되던 악기였습니다. 또한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에 기쁨을 표현하기 위해서 동원되던 악기이기도 하였습니다.
연주를 중지하게 된 이유가 3절에서 나타납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라는 말은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서 선민들이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성전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부르던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거부하고 수금을 나무에 매달아버린 상황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물론 조롱과 멸시가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다 무너져버린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불렸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거들먹거리며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것은 시인이 그들의 기쁨을 위해 찬양하기를 멈췄다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이러한 상황을 도리어 선교와 전도의 기회로 삼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왕이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을 감동적으로 성사시켜서 하나님께서 천지의 창조주이시며 유일하시고 살아계신 분이심을 전도해도 좋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시인의 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3절을 다시 한 번 살펴봅니다.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이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

께 부르는 찬양을 요구하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의 기능은 세상 속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으려는 마음을 죽이는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성전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만을 기쁨으로 삼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성전을 파괴한 자들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얻고자 성전에서 불리던 노래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이들의 기쁨은 돈 건강 형통 성공 등의 이 세상의 가치였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였지만, 영적으로는 바벨론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가치에 포로 된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포로 되어 치욕을 겪게 된 것도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전이 건재할 때에 눈으로 보면서도 성전을 생활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 때에 선민이라면 성전을 떠올리고 상번제의 번제단에서 마음을 죽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전 생활화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기에 마음이 이미 세상의 포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있어야만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 곧 세상의 포로 된 상태이고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우리말에 “눈에 콩깍지가 씌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입니다. 선민들은 이렇게 세상에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를 깨닫질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선민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세상에 갇혀 포로 된 자들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성전 생활화를 하지 못했음을 깨닫고 성전과 예루살렘을 그리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민들에게 성전을 파괴한 바벨론 사람들이 와서 노래를 요청합니다. 성전을 파괴함은 곧 이 세상 가치에 포로 된 상태를 긍정적으로 보고 유지하려는 마음가짐입니다.
이 세상 가치에 포로 된 마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 보라고 하니 시인은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이 영적으로 얼마나 더럽고 끔찍한 일인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에 자신들의 삶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돈으로 기쁘기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도 했습니다. 바벨론의 사람들의 모습에서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하나님 찬양을 들려준다면 자신들이 했던 일이 또 반복되고야 맙니다. 그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부를수록 돈을 벌려고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세상에서 건강하고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동원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은 이유에서 메시야 되심을 감추셨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메시야조차도 세상 가치의 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금 교인들에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살다보면 어쩔 수 없이 마음이 돈의 노예가 됩니다. 돈이 없으면 행복할 수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형통이나 성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예배당에 들어와 앉아있을 때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을 세상 가치의 획득 수단으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타난 바벨론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아진 것입니다. 세상 가치를 얻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찬양을 한 번 해보라는 심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인들의 입맛에 맞추다보니 목사님들의 설교 또한 십자가 생활화에서 벗어납니다. 이 세상 가치에 포로 된 자들이 기뻐하는 내용에 맞춰져버리게 됩니다. 교인들이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었다면 목사님 입에서는 하나님 찬양은 금지곡이 되어야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찬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선 교인들의 포로 된 상태 자체가 바뀌어야만 합니다. 세상 가치로부터 자유롭게 되지 않는 한 하나님에 대한 찬양조차도 의미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설교를 해봤자 교인들은 '조물주'라는 단어에서 '물주'라는 단어를 마음에 각인시키고야 맙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설교를 해봤자 내 건강을 위해 하나님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성전을 파괴한 자들이었습니다. 성전의 기능을 모릅니다. 이는 곧 십자가의 기능을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니 마음은 거침없이 세상 가치의 포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4절부터 보면 이러한 깨달음이 나타납니다. 포로로 잡혀오기 전까지는 선민들도 마음이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성전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자 비로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에서 포로생활을 하다 보니 바벨론 사람들에게서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4절에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라고 하였습니다.
'이방 땅'이란 이 세상 가치에 마음이 포로 된 자들의 땅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아니면 기쁨과 만족은 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땅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듣는 가운데 여호와를 찬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5절을 보면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른손이 재주를 잃는다'라는 말은 먹고 살길이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삶 자체가 불가능해짐을 의미합니다. 반어법적으로 예루살렘을 잊을 바에는 차라리 죽고 말겠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잡혀오기 이전에 이러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았으련만 이제야 깨닫고 있습니다.
또 6절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

워하지 아니할진대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성전이 건재할 때에 이렇게 행했어야만 했습니다. 성전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입니다.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즐거워한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을 가장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돈을 갖게 될 것을 즐거움으로 여기고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가장 즐거워하는 대상으로 명예나 인기를 선택합니다. 자녀의 행복이나 건강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대상보다도 성전이 즐거움의 대상으로 우선되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없다면 차라리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것이 낫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마음이 사로잡힌 상태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겠다는 결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이 되셔야 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에 종속시켜버리는 바람에 선민들은 포로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세상의 가치에 종속시키지 않겠다는 결심을 드러내는 굉장한 노래입니다. 즉 이방 땅에서 세상 가치에 포로 된 마음들로 둘러싸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전을 사모하는 선민들의 마음으로 십자가를 불러야만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십자가 사라졌습니다. 사순절 기간에나 십자가를 강조하다가 곧 주제는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하나님 찬양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이름은 이미 나를 포로삼은 세상의 가치들에 종속되어 버립니다. 이럴 바에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런 마음에서 벗어나기 위해 십자가를 전해야 합니다. 마음이 죽어야만 한다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도 없고, 하나님과 만날 수도 없으며, 하나님을 허락받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음을 전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시며 복음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포로 된 상태로부터의 자유를 먼저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세상의 포로 된 상태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이 먼저입니다. 자유로워져야 하나님을 향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세상의 포로 된 상태에서 느끼는 기쁨을 인정한 채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실상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궁극적 관심이 되어버린 세상 가치를 위해 종사하는 수단으로 바꾸는 것일 뿐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하나님에 관해서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학을 동원할지라도 마음이 세상의 가치에 포로 된 자에게 하나님의 이름은 단지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감동적인 설교도 마음 상태가 이방인처럼 세상 가치에 포로 된 사람에게는 소용이 없

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세상 가치를 더 잘 벌 수 있겠다는 결론 외에는 다른 것이 나오지 않습니다. 설교는 설교가 아니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자녀를 가진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라시는 것은 부모가 되는 것이지 자녀들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멋진 사업가가 되라고 하셨지 돈의 노예가 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훌륭한 의사가 되라고 하셨지 환자의 머리수를 돈으로 여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맡은 바 자리에서 진정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일에서 기쁨과 만족을 찾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의사일이 아닌 골프 치는데서 기쁨을 얻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태한 것이고 직무 유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포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포로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찾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찾는 부모가 자녀를 기르는 전문가가 됩니다. 하나님을 통해 기쁨과 만족을 찾는 사업가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전문 사업가가 됩니다. 모든 일들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가 세상의 가치를 통해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동안에는 전문가가 아닌 포로입니다. 포로 상태에서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은 물 건너갔습니다.

본문에서 성전을 폐허로 만든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성전은 예배당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의 예표입니다. 성전 지성소에 법궤가 있었듯이, 우리 마음의 지성소에 만족과 기쁨의 근거인 하나님의 이름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지 않은 마음을 번제단에서 죽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파괴시키고 십자가를 마음에서 지워버렸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설교나 찬양이 불려서는 안 됩니다. 먼저 십자가가 전파되어야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자임을 받아들일지 아닐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집사님이든 권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그 마음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 있거든 그들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창조주로 기리지 마세요. 그렇게 할수록 하나님을 세상 가치를 얻기 위한 램프의 요정쯤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회를 책망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는 항구도시였기에 돈이 많았습니다. 교회에도 세상가치에 붙잡힌 사람들과의 분파가 생겨나 문제와 다툼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 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찬양은 금지곡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에 의해서 망령되이 일컬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교회에서도 하나님 찬양은 금지곡이 되어야만 합니다. 교회가 자본주의 정신에 완전히 장악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인이 ‘내 혀가 내 입천장에 붙을지

로다'라고 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세상가치의 포로가 되어버린 이들의 기쁨을 북돋아 주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꺼낼 바에는 차라리 혀가 녹아서 입천장에 달라붙어 평생 벙어리로 사는 것이 낫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세상 가치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 찬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세상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됨을 먼저 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나의 마음이 이 세상 가치에 포로가 되어있다면 하나님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죽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포로 된 자들 앞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함부로 불려서도 안 될 것입니다.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그 이름을 감추고, 먼저 저주를 안고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